

나눠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네. 그녀들은 이 일을 내게 맡기기로 했지. 나는 거의 똑같은 크기로 땅을 둘로 나눴네. 하나는 이 암벽 분지의 위쪽 방면을 포함하는 땅으로, 라타니아강 원류가 흘러나오는, 구름에 뒤덮인 저 바윗부리에서부터, 자네도 산꼭대기에 오르면 보이겠지만 실지 대포를 쏘려고 만들어 놓은 구멍을 닮았다 해서 포안(砲眼)이라 불리는, 이 가파르게 깎아지른 통로까지였지. 이 땅 안쪽은 온통 바위와 꼭 끼진 골로 가득해 거의 걸을 수 없는 지경이긴 하지만, 커다란 나무를 울창하게 키워내고, 샘과 작은 개울 또한 지천에 널려 있다네. 다른 쪽 땅에다가는 라타니아강을 따라 지금 우리가 있는 분지 입구까지 펼쳐지는 아래 방면 전체를 포함시켰는데, 여기서부터 저 강은 두 개의 동산 사이를 흐르기 시작해 바다까지 흘러간다네. 보다시피 변두리에는 드문드문 목초지도 있고 땅도 비교적 평탄한 편이지만, 위쪽보다 더 나은 땅인 것은 결코 아닐세. 아닌 게 아니라 우기에는 땅이 질척해지고, 또 건기에는 납덩이처럼 딱딱해져, 도랑이라도 하나 팔라 치면 도끼로 땅을 쪼개야 할 지경이니 말이야. 어쨌든 땅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뒤, 나는 두 부인이 제비뽑기를 하게 했다네. 위쪽 땅은 라 투르 부인에게, 아래쪽 땅은 마르그리트에게 돌아갔지. 두 사람 다 제 몫으로 할애된 땅에 만족했지만, 그녀들은 “우리가 늘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며 서로 돕고 살 수 있도록”이라 말하며 내게 거처를 나눠놓지는 말아달라고